

# 구례, 지리산정원 생태관광 허브 조성

### 조경공사·리모델링 통한 5개 주제 시설 구축 주변 관광지 연계 체류형·관람 인프라 확충

구례군이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지리산정원과 구례수목원을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구축하고 관람환경 인프라를 확충한다.

구례군은 국내 최초 숲 정원을 조성하는 '지리산정원 조성사업'의 5개 주제 정원 3개 정원을 조경공사를 올해 초 마무리하고 2개 정원의 조경공사와 온실 리모델링을 추진해 숲속 정원으로 지방정원 등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구례수목원에는 방문객 서비스 증진을 위한 식물판매장 및 카페, 피크닉가든, 그늘쉼터 등의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식물

판매장과 카페는 숲에서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5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1층은 식물판매장, 2층은 카페로 활용할 예정이다.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걷기 힘든 탐방로를 정비하고 식물보식 및 환경정비를 통해 안전한 관람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식물의 어원, 꽃말, 특징, 유래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안내판을 제작·설치해 방문객의 감성과 흥미를 유발할 계획이다.

생명치유 가족단위 조성사업은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리산정원 내 숙박시설 9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대사회

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대자연 속에서 치유하는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수유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산수유휴양림 내 숙박시설 11동과 휴양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이용객들에게 34ha의 울창한 천연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피톤치드 가득한 산림욕을 제공한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실내에 자동관수 및 조명제어, 냉·난방과 제습·환기 시스템 등이 탑재된 큐브형과 벽면형이 혼합된 실내정원을 설치해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실내 식물생태 교육환경을 마련한다.

지리산역사문화관은 지난해 10월 재개관 이후 '큰 산 아래 사람들'이란 기획전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추억의 교복체험 등 다채로운 모

습 체험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학생들과 기관단체 등 관람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희망을 띄우는 전통 연 날리기 체험, 추억의 버스킹 공연, 지리산 역사알리기 등 방문객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례군은 구례수목원과 지리산정원을 연계하고 사계절 테마가 있는 핫플레이스 공간 조성 및 차별화된 숲길 체험, 야경 감상, 야생화 특화길 걷기 등 다양한 이벤트 및 체험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리산정원과 구례수목원을 연간 10만 관람객이 다녀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생태관광의 허브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 “3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 2022 새해설계

#### 송기근 고흥군수



“고흥 미래비전 완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송기근 고흥군수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고흥발전 5대 전략분야에 중점을 두고 3대 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새해 설계를 밝혔다.

송 군수는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1인당 연간 소득을 3,000만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 및 시설원예를 현대화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올해 준공한다. 스마트 순환여과방식의 첨단 양식장은 올 상반기에 준공하고 남부권에 수산식품가공단지를 조성한다. 고흥 한우의 품질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신축과 면역·예방 백신 등을 지원한다.

고흥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남여울마을 조성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옛 청사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해 고흥읍 원도심이 더욱 활기가 넘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절이도 해전 승첩지를 관광생태 공원으로 조성하고 김일 선수 조각공원을 조속히 마무리한다. 팔영대교 인근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만들고 우주발사전망대 주변에 고흥 테마체험

형 모노레일, 용암 스카이워크, 남도 명품길 등을 조성한다.

고흥군은 도양 노인건강복지타운을 올 상반기에 완공하고 노인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송 군수는 고흥의 미래를 이끌어갈 3대 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드론산업화 실증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드론산업 중심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업유치와 관광활성화를 꾀하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연내에 착공하는 5,000억 원 규모의 '고흥 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남해안권 해양관광 거점 도시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제시했다.

송기근 군수는 “올해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고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이겨내겠다”며 “지역발전의 나무들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진중언 기자

### SNS 청년기자단 5명 모집 곡성, 오는 28일까지 5명

곡성군이 오는 28일까지 2022년도 곡성군 SNS 청년기자단을 모집한다.

곡성군 SNS 청년기자단은 올해 12월까지 곡성군의 관광, 축제,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SNS를 통해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 달에 총 3건의 게시글을 작성해야 하며 그 중 2건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1건은 곡성군 공식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활동비로 월 18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월 2건 이하로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우 건당 5만 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모집인원은 5명으로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의 연령 기준인 19세 이상부터 만 49세 이하가 대상이다. 곡성군에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거주 지역에는 제한이 없다.

곡성군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 2월 16일 경 선발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는 ▲SNS 활동 수준 40% ▲콘텐츠 제작 수준 40% ▲자기소개서 20%로 이뤄진다.

곡성군 관계자는 “자유롭고 재미있게 곡성군을 알릴 수 있고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곡성의 맛과 멋을 발견할 수 있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순천시가 지난 10일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순천시 제공

## 순천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달린다

### 교통약자 편의 증진 저상버스 2050탄소중립 도시 조성 기여

순천시가 정부의 그린뉴딜 2050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지난 10일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도입된 전기버스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됐으며, 기존 CNG 버스와 달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탄소저감에 기여하게 된다. 운행 시 소음 및 떨림도 적어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순천교통 차고지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최광수 순천교통 대표, 운전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 버스를 시승하고 운영을 축하했다.

전기 시내버스의 운행 노선은 제일고에서 출발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신대지구를 거쳐 서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는 도심

순환노선 100번 2대와 101번 3대, 총 5대를 투입해 1일 36회, 1,000km 정도를 운행하게 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은 순천형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라며 “순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해 순천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광양, 3차 긴급생활비 30만원 25일부터 지급

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10일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대상은 1월 10일 오후 6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광양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등록을 둔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올 2월 28일까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규 출생아이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 원이며 외

부유층 없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병행해 지급한다.

소요예산액은 460여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급하며, 관련 예산은 오는 14일 개최하는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급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광양제철 프렌즈봉사단, 야생동물 먹이 주기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이 최근 백운산 일대에서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야생동물 먹이 주기는 추운 날씨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야생동물의 탈진 및 폐사를 방지해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행사다.

이날 단원들은 광양제철 백운산 수련

관에서 노랑이봉으로 이어지는 인적 드문 등산로와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따라 배추, 당근, 고구마, 잡곡 등의 먹이를 놓아주었다.

광양박판공정혁신 강봉희 리더는 “사람과 야생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봉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 여수운항관리센터, 설 여객선 특별점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운항관리센터가 최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운항관리센터는 여객편의시설과 겨울철 화재예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식별된 결함 사항에 대해서는 설 전까지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여수운항관리센터는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함께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과 선박 접안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호성 여수운항관리센터장은 “설 연휴 기간 센터의 근무를 강화하고 선원 등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안전교육을 통해 편안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 숲속의 전남, 이사장 이·취임식

(사)숲속의 전남이 지난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숲속의 전남'은 숲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숲 조성을 위해 2015년 창립했으며 생활권 주변 숲 조성, 숲 정비와 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임하는 정은조 이사장은 “한그루의 명품 나무를 만들기 위해 버팀목과

희생목이 필요하듯 숲속의 전남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취임한 황금영 이사장은 “탄소중립 시대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나무심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